

제 목	국 문	ILO점검표를 이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실태		
	영 문	Occupational health problems in small scale enterprises by ILO check list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경용, 박정선, 이관형, 백도명, 이기범, 문영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 문	Kyung Yong Rhee, Jung Sun Park, Kwan Hyeong Yi, Domyung Paek, Ki Beom Lee, Young Hahn Moon <i>Industrial Health Research Institute, KISCO</i> <i>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i>		
분 야	환경	발 표 자	이 경 용	
발표 형식	포 스텐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1995 년 12 월			
<p>1. 연구 목적</p> <p>자본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을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기도 하다. 현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 사업이나 산업보건 관리모델 개발을 위하여 시범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작성한 점검표를 이용하여 산업보건 분야의 주요 부문별 문제를 파악하였다. 본 조사 결과를 통해 국제간 비교는 물론 산업보건 사업이 필요한 부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고 산업보건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기준으로 이러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비교함으로써 산업보건 사업의 대상 목표 집단을 명확히 할 수 있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하였다. 국제노동기구가 작성한 점검표의 일어 번역판을 이용하여 국문으로 작성하였다. 점검표 작성을 위하여 안전 및 산업위생 관련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전체를 확인하고 관련 기록들을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 사업장 수는 992개소로 전국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사업장의 표본추출은 전수 기록을 수집할 수 없어 지역 할당 방법을 이용하였다.</p> <p>조사 자료의 수집은 1994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점검표상 발견된 문제점의 확인을 위하여 2차 방문을 시도하였다.</p>				

3. 연구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 99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작업 관리 중에서는 교육 부분의 문제가 가장 많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이 73.5%였으며, 교육 교재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곳도 67.1%였다. 개인 보호구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주지시키지 않고 있는 곳도 58.2%에 달하고 있었으며, 안전보건표지가 없고 특정화학물질이나 유기용제 등의 명칭이 게시되지 않은 곳도 55%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유해물질 관리 부분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유해물질 사용시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 40.5%였다. 보건관리 부분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29.1%였으며, 적절한 보호구의 종류와 수량 등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은 곳이 52.2%, 검정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는 곳이 37.0%, 보호구의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곳이 36.1%에 달했다.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장의 비율이 20%를 넘는 항목들은 부분별로 다음과 같다. 작업관리 부분의 경우 통로 확보, 보건교육 실시, 교육 교재의 비치, 개인 보호구 사용법 주지, 안전보건 표지 게시, 화학물질 및 유기용제 명칭 게시, 유기용제 구분 표시 등이었으며, 작업환경 관리 부분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의 설치 등이었다. 유해물질 관리 부분에서는 유해물질에 맞는 적절한 보호구의 사용, 용제와 페인트의 적절한 용기 보관 및 사용 등이었으며, 보건관리 부분에서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적절한 보호구의 종류 및 수량 공급, 검정된 보호구 사용, 보호구 유지 관리 등이었다.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동력전달장치에 대한 방호 장치 설치, 기계위험점에 대한 방호 장치 설치 등으로 조사되었다.

점검 항목별로 개선 필요성이 가장 많이 지적된 업종의 분포를 보면, 보건교육 실시의 경우 개선필요성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의복, 섬유, 정밀기계, 인쇄 출판업종의 순이었으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경우 인쇄출판, 의복섬유, 전기기계의 순이었다.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가죽산업과 인쇄출판, 정밀기계의 순이었으며, 안전보건 표지 부착의 경우 인쇄출판, 가죽, 신발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인쇄출판과 의복 섬유 등의 업종은 여러 항목에서 개선필요성이 높은 업종임을 알 수 있다.

4. 고찰

국제노동기구에서 작성한 사업장 점검표는 산업보건 분야를 몇 개의 부분으로 구별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점검표 상에 기록된 항목들을 어떠한 형태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전문인력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업종에서 개선 필요성이 가장 많이 지적된 점을 바탕으로 산업보건 사업의 목표 대상 집단을 선정할 수 있다.